



국내 유일의 가금진료 연구소 개소

- 질병진단으로 계군의 영양상태까지 파악 -

충북 음성에 위치한 가금진료연구소

오는 10월 11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350평 규모의 가금진료연구소(소장 손영호)가 개소식을 갖는다. 연구소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구상하고 있는 연수원이 들어서면 명실공히 양계인들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손영호 소장은 갖고 있다.



▲ 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

세계 최고를 꿈꾼다

손영호 소장은 평소부터 세계 최고의 가금진료 연구소를 꿈꾸어 왔다. 현재 부지를 마련 한 것도 이미 5년 전의 일이다. 중부고속도로가 이미 주변을 지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선까지 인접지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유리하다.

연구소는 3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사무실 및 세미나실, 2층에는 연구 및 실험실, 3층에는 숙소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및 실험실은 중앙실험실, 세균진단실, 바이러스 진단실, 연구원실, 냉장실, 냉동실, 무균실, 인큐베이터 등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 밖에는 족

구시설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도 배려하였다.

1998년 당시 경기도 이천시에서 18평의 점포를 얻어 단지 실험대 2개로 출발한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양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양계인 입장에서 접근, 현재는 국내 전체 산란계 수수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

며, 7명이던 직원도 금년 말까지 수의사 2명을 더 충원해 9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손영호 소장은 국내 양계산업은 외국 어느 곳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양관리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국제 선진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금진료연구소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소는 개인 양계시설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규모이며, 시설의 크기만큼 각종 양계질병 진단 및 실험장비도 부족함이 없다. 손원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만을 보고 연구소를 계획하지 않았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우리를 보는 외국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며, 동남아는 물론 유럽지역의 아성까지도 무너뜨릴 자신이 있음을 자신하고 있다. 즉 국내 IT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전혀 불



▲ 반석가금진료연구소 가족들(좌부터 김세영 부소장, 권미연, 박혜정, 김미에, 이문영 사무원, 손영호 소장, 경은숙 부인(경리))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손영호 소장의 주장이다.

혈액분석으로 계군별 영양까지 파악

가금진료연구소 시스템중 가장 큰 자랑거리는 수의사들이 사무업무에 매달려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고 농장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



▲ 혈액진단을 통해 계군관리가 가능한 '혈액화학진단기' 등 실험용 기기들이 완비되어 있다.



▲2층 실험실 내부 광경

도록 하는 일명 'Back office' 이다.

즉, 수의사들은 농장의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실에 상황을 알려주면 연구소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험과 진단이 이루어지고 모든 정보를 자료화시킴과 동시에 앞으로의 출장계획을 수의사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혈청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실 입구

다.

또한 4년전 마련한 '혈액화학분석기' 를 통해 농장의 계군을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는 질병관리 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료회사나 농장에 알려주는 '피드백' 형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영호 소장이 준비하

고 있는 또 다른 계획은 국내에 '혈청은행 (Serum bank)' 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소한 가금진료연구소에는 혈청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영하 80℃의 냉동보관실이 마련되어 있어 국내 유일의 '혈청은행' 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양계질병 역사를 보관하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부터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시설이다. 혈청은행은 더 나아가 외국으로의 혈청 수출도 가능하게 되면서 외화획득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호 소장은 '농장을 위하는 마음' 이 수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임을 강조한다. 즉 농장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석가금진료연구소에서는 빠른 질병진단과 만족할 만한 처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즉, 농장에서 가검물 및 혈청을 의뢰받은 지 3일 이내에 모든 질병

을 진단하여 농가에 통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항생제 없는 농장 만들기

손영호 소장은 농장을 방문해서 상담 도중 약품 사용방법을 자주 설명한다. 즉, 항생제를 쓰지 않는 방법이다. 관리 농장들은 약품비중 중 항생제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이 특징이다. 반석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통해 농장에 보급하는데 항상 앞장서고 있다.

또한, 모든 질병은 환경적인 원인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영호 소장은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계분만 잘 관찰하고 관리해도 농장의 질병은 예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대장균증은 환경개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1종 가축전염병인 ND의 경우 2차감염을 막기위해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아는 농장이 많은데 이는 전혀 잘못된 지식이라 설명하고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석의 프로그램을 따르면 전혀 문제없이 양계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손영호 원장은 앞으로 500평 규모의 양계 연수원을 가금질병연구소에 건립할 계획을



▲ 세미나실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교류된다.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족구장 안비

갖고 있다. 현재 조합을 구성하여 관련업계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데 연수원이 만들어지면 양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양하게 교류될 것이다. 연수원은 외국으로부터 한국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국제적인 양계교류센터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가 양계산업의 진정한 정보교류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